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그리스 위기 확대 저지 공감대 형성

-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5차분 지원유보 발표와 무디스의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3단계 하락으로 그리스의 디폴트(국가채무 불이행) 가능성이 크게 치솟음.
 - IMF는 추가지원 없이는 12개월 내 그리스의 구제금융 상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1년전 승인된 구제금융 1천 100억 유로 중 6월 말로 예정된 5차분 (120억 유로)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시사함.
 - 한편 무디스는 그리스 경제의 성장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고 채무 재조정 없이는 채무위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'B1'에서 3계단 낮은 'Caa1'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.
 - Caa1은 쿠바와 같은 등급으로서 지금까지 Caa1 등급을 받은 국가나 회사는 50% 정도 디폴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.
- 그러나 그리스 위기 확대를 조기에 막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간 지연되었던 그리스 추가지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될 전망이다.
 - 그리스가 디폴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IMF 자금이 긴급하기 때문에 EU는 추가지원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발표함.
 - EU는 650~700억 유로 규모의 추가지원을 검토 중이며, 이 방안에는 세제 변경, 국영자산 민영화, 대대적인 긴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.
 - 그리스 국채보유 민간채권자의 손실분담을 그리스 지원의 필수조건으로 내걸며 완고한 태도를 보였던 독일이 한 발 물러서면서 추가지원의 가능성이 커짐.
 - 세금인상과 국영자산 민영화에 대한 그리스 내부의 반발도 무시 못 할 요소였으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임.
- 추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고려되었던 채무 재조정은 오히려 금융시장의 안정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그리스가 채무 재조정에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지고, 글로벌 CDS시장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세계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.
 -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은행권은 그리스 국가부채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(Financial Times 등 6/1)